

-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8. 10. 8. ~ 10. 13.
베트남, 말레이시아

산 업 건 설 위 원 회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개요

1. 출 장 국 :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2. 활동목적

2018년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선3기 출범의 해로 ‘행정수도 완성’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방안 모색 필요

- 베트남은 2017년 GDP 성장률 6.8% 달성, 2016년 ‘국가 창업의 해’ 지정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정책 추진 등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 중

-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의 발전상 및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 운영 사례 학습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산업 관련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3. 활동기간 : 2018. 10. 8(월) ~ 10. 13(토), 4박 6일

4. 보고서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

5. 활동자 인적사항 : 총 13명

소 속	성 명	비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유철규, 김원식, 손인수, 이재현, 이태환	의원
의회사무처	박형국, 윤종오, 권혜진, 박무영, 염혜인, 노은선, 이승재	공무원

|| 목 차 ||

I . 연수 개요	1
II . 방문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현황	3
III . 공무국외활동 현황	4
① QTSC(꽁꽁소프트웨어시티)	25
② 드림플렉스	34
③ 푸트라자야 관리청	42
④ MKM(말레이시아 협동조합 대학)	52
IV . 공무국외활동 결과	89

- 경제·산업 및 도시계획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I 연수 목적 및 개요

① 목적

-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선3기 출범의 해로 ‘행정수도 완성’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방안 모색 필요
- 베트남은 2017년 GDP 성장률 6.8% 달성, 2016년 ‘국가 창업의 해’ 지정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정책 추진 등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 중
-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의 발전상 및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 운영 사례 학습

② 개요

- (기 간) 2018. 10. 8(월) ~ 10. 13(토) (4박6일)
- (행 선 국)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 (활 동 자) 13명
 - 의원 6, 직원 7(전문위원실 5, 의정담당관 2)

구 분	성 명
의 원	차성호, 유철규, 김원식, 손인수, 이재현, 이태환
직 원	박형국, 윤종오, 권혜진, 박무영, 염혜인, 노은선, 이승재

- (활동내용) 경제·산업 및 도시계획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③ 세부일정

일자 (요일)	방문지	방문기관	수 행 내 용	이동 수단
10. 8 (월)	인 천	(국가이동)	- 인천국제공항 → 탄손누트국제공항(호치민)	항공
	베트남	· 전쟁박물관	- 베트남 역사의 이해	차량
10. 9 (화)	베트남	· QTSC (Quang Trung Software City)	- ICT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능형 도시 모델 SW특화 산업단지 ☞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발전방안 벤치마킹	차량
		· 벤탐시장	- 호치민 최대 전통시장이자 관광명소 ☞ 세종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10.10 (수)	베트남	· 드림플렉스	- Co-Working 스페이스의 대표적 장소 ☞ 청년 스타트업 육성 기반시설 벤치마킹	차량
	말레이시아	(국가이동)	- 탄손누트국제공항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항공
10. 11 (목)	말레이시아	· 푸트라자야 관리청	-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정립방안 모색	차량
10.12 (금)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대학 (MKM)	-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 아의 유일한 협동조합 협력훈련센터 ☞ 사회적경제 우수 사례 학습	차량
		(국가이동)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항공
10.13 (토)	인 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

1 베트남

□ 개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통킹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오다가 1884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민을 중심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발족시켰으나 외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베트남은 1954년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1954년에는 북베트남의 공산당정권이 북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 세력을 완전히 패퇴시킨 후,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졌다. 남과 북으로의 분단은 남과 북 사이의 20여년에 걸친 긴 전쟁을 가져왔다. 통일 전쟁 중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며 한국과 필리핀·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지원군을 파병하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이다. 한국과는 1992년에,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행정구역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 직할시(centrally administered city)와 58개의 성(省)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국기



1945. 9. 4.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할 때 처음 만들어진 후 1955. 11. 30.에 북베트남의 국기인 ‘금성홍기(金星紅旗)’로 제정하였다. 베트남 전쟁 후, 1976. 7월에 통일국가의 국기로 정하였다. 빨강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황색별 5개의 모서리는 노동자·농민·지식인·청년·군인의 단결을 나타낸다.

□ 방문지역



□ 일반현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동경 107° 50', 북위 16° 10')
면적	약 33만 966.9km ² (한반도의 약 1.5배)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Hà Nội)
인구	9,554만명(세계은행, 2017년)
주요 도시	하노이(Hà Nội, 732만명), 호찌민(TP. Hồ Chí Minh, 829만명), 하이퐁(Hải Phòng, 198만명), 다낭(Đà Nẵng, 104만명), 켄터(Cần Thơ, 125만명)
민족	비엣족(깁족, 85.7%), 타이족(1.81%), 크메르 족(1.47%)등 54개 민족
언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12%), 가톨릭교(7%) 등
건국일	1945년 9월 2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1당제)
국가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서기장 :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 ○ 국 가 주 석 :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겸직 ※ 쩌ندا이꽁(Trần Đại Quang) 국가주석 2018. 9. 21. 사망 ○ 국 회 의 장 : 응우옌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 수 상 :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 경제지표

GDP	2,238억 달러 (2017년, 세계은행)
실질경제성장률	6.81% (2017년, IMF)
1인당 GDP	2,343달러 (2017년, 세계은행)
실업률	2.33% (2016년, IMF)
소비자 물가상승률	3.52% (2017년, IMF)
화폐 단위	베트남동(VND)
환율	1USD = 22,990VND (2018. 7. 2. Vietcombank 고시환율)
외채	869억 달러 (2016년, 세계은행)
외환보유고	490억 달러 (2017년, 세계은행)
산업구조	농업·임업·수산업(10.3%), 제조·건설업(35.2%) 서비스업(43.7%) (2017년, 베트남 통계청).
교역규모	○ 2017년 : (수출) 2,137억 달러, (수입) 2,111억 달러 ○ 2016년 : (수출) 1,759억 달러, (수입) 1,732억 달러 ○ 2015년 : (수출) 1,624억 달러, (수입) 1,656억 달러 (2017년, 베트남 통계청)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각종 휴대전화 및 부품(21%), 섬유·의류 (12.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12.1%), 신발류(6.85%), 기계·플랜트 및 부품 (5.98%), 수산물(3.91%) 등 ○ 주요 수입품 : 기계·플랜트 및 부품(17.8%), 전자제품 및 컴퓨터 (15.9%), 각종 휴대전화 및 부품(7.7%), 원단·직물(5.4%), 철강제 품(4.3%), 플라스틱 원료(3.5%), 등 (2017년, 베트남 통계청)

□ **경제동향** [2018, KOTRA 자료]

○ (GDP 증가율) 2017년 베트남은 정부가 목표했던 6.7%를 넘어, 6.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함.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견인한 주요 원인은 3~4분기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활성화임.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베트남의 수출액은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출액 성장률을 기록함.(전년 대비 21.1% 성장).

- 제조업 또한 2011년 이래 최고치인 14.4%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제조업 생산지수도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14.5%)을 기록.

- 베트남 정부는 2018년 GDP 성장률 6.7%를 목표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1~6월) 경제 성장률 7.08% 달성.

* 2018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 1분기 7.45% → 2분기 6.79% → (목표) 3분기 6.53% → (목표)4분기 6.36%

○ (수출입)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가속 등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임.

- 2018년 1~6월 기준,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139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112억 달러임(베트남 통계청).

* 2017년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 수출액 6,649억 달러, 수입액 5,795억 달러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 통계를 보면 미국(416억 달러), 중국(354억 달러), 일본(168억 달러)이 베트남 1,2,3위 수출 시장으로 꼽혔으며, 한국(148억 달러)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4위 수출국임.
- 2017년 베트남 수입 대상국의 경우, 중국(582억 달러)이 베트남에 가장 큰 수입 국가이며 다음으로 한국(467억 달러), 일본(165억 달러), 대만(127억 달러) 순임. 최근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의 교역 증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2018년 1~6월 기준, 베트남 총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부문(FDI)이 71.6%를 차지했으며, 총 수입액에서도 58.9%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신발, 기계장비 등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역시 대부분 외투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임.

* FDI 기업 수출 비중 : '14년(67.7%) → '16년(71.6%) → '18년 6월(71.6%)

* FDI 기업 수입 비중 : '14년(57.1%) → '16년(59%) → '18년 6월(58.9%)

- (외국인투자) 2018년 1~6월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규 투자건수 1,366건, 총 투자금액 2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환율) 2018년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달러 강세, 동(VND)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베트남의 외환보유고 지속

증대, 무역수지 양호, 내수경기 호조 등으로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경제전망

○ 베트남, 2018년 GDP 성장률 6.5~6.7% 목표

2018년 베트남 주요 경제 목표는 GDP 성장률 6.5~6.7%, 물가 상승률 4% 이내, 수출액 7~8% 증가 등이다. 이 외에도 성장모델 개혁, 노동생산력 및 품질, 효율성, 경쟁력 향상과 연계된 전략적 돌파구 마련과 시행,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 생산과 경영 촉진, 국민 생활 개선과 복리 향상, 행정개혁 강화, 정부의 관리기능 효율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 국가안보 강화 등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2018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 지속

2018년에도 베트남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트남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지속 회복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17.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를 통해 2018년 선진국 경제가 2017년에 이어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의 무역 구조는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실적은 선진국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폰, 전자제품,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외투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투자의 지속 유입이 베트남 경제 성장 견인할 것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TPP 최대 수혜국으로 언급되었던 베트남은 외국기업 투자자금 유입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내외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 이미 다수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낮은 인건비 등의 이점을 활용한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 증가했다.

2018년 1~6월 기준, 對베트남 외국인 총 투자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20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 이행 금액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8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DI 기업들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꾸준한 자금 유입은 베트남 경제활동을 증진시켜 GDP 성장에 이바지하고, 외투기업들의 수출활동은 베트남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1,2위 수출품목인 휴대폰과 섬유·의류 제품들은 모두 외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다.

베트남 정부는 FDI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현지 투자자와 기업인들의 출자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자산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재고 자산 활성화 및 금융권 부실채권 청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시장 통합과 개방으로 베트남 법률 제도와 사업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아세안, 미국, EU, 한국, 일본의 주요 외투기업들은 수입관세 인하 및 기술장벽 등의 철폐로 인해 베트남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이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베트남 투자환경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인접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과 값싼 원자재 수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으며, TPP와 AEC, 베트남-EU FTA, 한-베트남 FTA 등의 협정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 FTA 확장 통해 무역 부문 성장모멘텀 지속

베트남은 TPP를 통한 대미무역 수출 증가 효과는 상실했지만, 2017.1~11월 기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5월 3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에서 베트남의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언급하며 무역 불균형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통상압박 대상이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U-베트남 FTA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효과가 조금 지연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베트남 경제 성장 및 수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베트남 FTA는 EU와 아세안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EU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추가적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TPP)와 같은 거대 FTA 협정 체결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무역·투자 성장 모멘텀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은 FTA 체결을 늘림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상존하는 베트남 경제성장의 위협 요소

베트남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객관적 · 주관적 위협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베트남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2017년 베트남의 교역 의존도는 193%(GDP 대비 수출입액 비중 %)로 지난 5년간 지속 상승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액 대비 FDI 기업 수출액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외국 기업이 베트남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위험요소로 작용해, 베트남 수출실적 전반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료 및 연료 가격 하락은 베트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의 산업생산 활동과 국내 소비를 위한 고부가가치 상품 수입 수요 증가는 베트남 대외무역 수지에 부정적이다.

베트남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성은 예산 적자 , 부채규모의 증가 등의 악재에 따라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베트남 금융권의 구조적 취약성은 금리가 인상될 경우 높은 수준의 채무를 초래해 경제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유가 하락은 국가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부채를 양산하고 자본 유치에서 민간 부문의 저항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국영기업과 금융분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처는 베트남 거시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산업생산활동의 개선, 베트남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향후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2 말레이시아

□ 개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8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반도 11개 주가 통합하여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1963년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구 말라야연방:약 13만km²)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와크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북칼리만탄:약 20만km²)로 이루어져 있다. 서말레이시아는 길이 약 800km, 폭 325km이고 북쪽과 남쪽은 각각 태국, 싱가포르와 국경을 이루고, 서쪽과 동쪽은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 면한다. 동말레이시아는 길이 약 1,075km, 폭 384km로 북서쪽과 동쪽은 남중국해와 셀레베스해에 면하고, 남쪽은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과 국경을 이룬다.

행정구역은 13개 주(negeri, state)와 1개 연방 준주(wilayah persekutuan), 3개 시(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부터 푸트라자야가 새 행정수도가 된다.

□ 국기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상징이고, 파랑·하양·빨강의 3색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에서 취했다. 별과 달의 노란색은 왕실의 색깔이며, 파랑 직사각형은 국민간의 단합 또는 이 나라가 영국연방에 속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줄무늬의 수는 연방을

이룬 13주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나타내며, 파랑 직사각형 안에 있는 별의 14개 빛살은 13주와 연방정부의 조화 및 통합을 의미한다. 가로세로 비율은 2:1이다. 1963. 9. 16.에 제정하였다. 1997. 8. 31. 독립 40주년을 맞아 ‘영광스러운 줄무늬(stripes)’라는 뜻의 ‘Jalur Gemilang’라는 이름을 붙였다.

□ 방문지역



□ 일반현황

국명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위치	동남아 적도 북단
면적	330,252km ² (남한의 3.3배/한반도의 1.5배)
기후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인구	3,205만명(2017년)
주요 도시	쿠알라룸푸르(180만명), 셀랑고르주(565만), 조호주(50만), 페락주(242만), 페낭주(170만), 사바주(337만), 사라왁주(254만)
민족	말레이계(68.8%), 중국계(23.2%), 인도계(7%), 기타(1%)
언어	말레이어(Bahasa Malaysia, 상용어는 영어)
종교	이슬람교(61%, 국교), 불교(20%), 기독교(9%), 힌두교(6%), 기타(4%)
건국일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연방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 : Sultan Muhammad V(15대 국왕, 2016.12.13 취임) ※ 말레이계 9 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수상 : Tun Dr. Mahathir bin Mohamad

□ 경제지표

GDP	3,145억달러(2017년)
실질경제성장률	5.9%(2017년)
1인당 GDP	9,818달러(2017년)
실업률	3.5%(201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2017년)
화폐 단위	Ringgit Malaysia(RM)
환율	1USD = RM 4.01(2018년 6월)
외채	1,942억달러(2016년)
외환보유고	945억달러(2016년)
산업구조	서비스업 51.0%, 제조업 22.4%, 광업 13.8%, 농업 11.1%, 건설업 1.7% (2017년)
교역규모	○ 수출 : 2,179억달러(2017년) ○ 수입 : 1,952억달러(2017년) ○ 무역흑자 : 227억달러(2017년)
교역품	○ 수출 : 전기전자 제품, 팜오일 및 팜오일 기반 제품, LNG, 석유 제품, 원유, 목재 및 목재 기반 제품 등 ○ 수입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 경제동향 (2018, KOTRA 자료)

가. 2017년 말레이시아 경제

말레이시아는 2015년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링깃화 가치 급락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정부투자 기금(1MDB) 비리 사태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을 배제한 TPPA 추진이나 동아시아경제협력협정(RCEP)의 추진 등으로 수출 지향형 활로를 뚫으려는 노력과 함께 역내 경제 선도국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초, 국제유가와 링깃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은 5.9%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1분기는 5.4%로 금년도 연평균 GDP 성장률은 5.5~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 성장

2016년~2019년간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국내 수요는 전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고정투자도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개인소비 또한 비교적 탄탄한 노동시장의 도움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도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확장시킬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긍정적인 발전 추세는 전적으로 국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다. 또한, 국제유가와 링깃화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경제는 2017년에도 5.9%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경제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 놓는다는 성장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내수진작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중이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뽕거랑(Pengerang) 종합석유화학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쿠알라룸푸르 MRT 건설, 판(Pan)-보르네오(Borneo)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에 TPP(환태평양 경제협력협정)를 2016년 1월 28일 자로 상하 양원 기준에 완료되어 본격적인 TPP 초기 참여자로 참여가 확정되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국의 TPP 탈퇴로 경제 도약의 동력을 일부 상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내수 소비시장까지 위축 조짐을 보이거나 TPPA를 대신한 차선택으로 아세한경제공동체(AEC)나 동아시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강화로 보완을 추구하는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부분도 경제의 상당한 부분(약 53%)을 차지한다. 2015~2019년간 연평균 6.2% 정도 확장될 전망이다. 여행객의 증가 때문에 서비스 중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유통, 호텔, 레스토랑 등으로 예상된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지배세력은 이슬람 금융의 지원 아래 금융서비스분야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산업부분의 성장 또한 연평균 6.4%까지 성장률을 보이며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① QTSC (Quang Trung Software City, 팜쑹소프트웨어시티)

□ 방문목적

- ICT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능형 도시 모델 SW특화 산업 단지를 방문,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발전방안 벤치마킹 실시

□ 방문개요

- (일 자) 2018. 10. 9.(화) 13:00 ~ 14:00
- (참석자) 17명(세종시의회 13, QTSC 4)
- (면담자) Tran Huu Dung (QTSC 회장)
- (내 용) 세종시 현황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QTSC 현황 질의·응답

□ QTSC (Quang Trung Software City) 현황

- (설립일) 2001. 3. 16.
- (위 치) 베트남 호치민시 12구 Tan Chanh Hiep Ward
- (면 적) 430,000m²
- (특 징) 베트남 최대·최초의 집약적 소프트웨어 파크
- (설립목적)
 - SW 연구 개발, 생산, 수출을 위한 국제규격의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 지속적으로 새로운 SW 기업 설립 및 보육, 전문적인 SW교육 제공, 국내·외 사업적인 도움 제공
 - SW전문가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 제공
 - 베트남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제휴 및 협력을 촉진
- (입주기업) 157개 ICT 기업
- (근무인원) 20,055명

□ 면담내용

Q1) QTSC 설립 시, 외국자본 투자유치 여부는?

- 2001년도 설립 시에는 베트남 정부 및 호치민시 정부에서 투자하였으며, 이후에는 베트남 국내외 투자자들이 QTSC 내 빌딩 건축 시 투자하는 경우가 있음.

Q2) QTSC 입주 기업의 창업지원금액 규모는?

- 초기 펀드는 시설구축 및 기업 건설팅, 펀드들이 지원해준 후 QTSC에서 직접 투자지원금을 유치하고 있음.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이 매우 풍부하며, 스타트업이 유망 업체로 선정되면 연 20억VND을 호치민시 정부에서 지원해줌
-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QTSC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료가 일정기간 동안 무료이며, 이후에는 임대료의 50%만 지불하면 됨. QTSC에서는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가들을 위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임. 또한 창업가들의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에 소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최근 QTSC내에 ‘R&D LAB’을 설립하였음. 여기에는 창업가 및 IT솔루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음. 베트남 정부에서는 4차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예정임. 앞으로 ‘R&D LAB’ 입주기업은 QTSC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것임. 국제 재정펀드를 제공하거나 투자지원금을 유치하는 활동을 많이 지원할 것임.

Q3) QTSC 설립 시, 외국자본 투자유치 여부는?

- 2001년도 설립 시에는 베트남 정부 및 호치민시 정부에서 투자하였으며, 이후에는 QTSC 내에 빌딩을 건축할 때 베트남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음.

Q4) QTSC는 국영기관인가?

-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속한 국영기업으로 호치민 인민위원회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주한 기업들도 호치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임.

Q5) QTSC에 입주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이 없는지?

- QTSC와 같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음.

Q6) 제2 QTSC 설립을 준비하면서 개선점 또는 기업들의 고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 개선방안을 분석, 정리하여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현재 QTSC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음. 기업들의 투자 절차 및 허가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출입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교통 및 산업단지 주변 시설을 잘 구축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기술자·엔지니어 등 근무인력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해주었음.
- QTSC는 베트남 최초의 과학단지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 과학단지가 설립되면 그 지역만의 장점을 추가하여 새롭게 적용할 예정임.

Q7) QTSC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삼성, LG등 대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이유는?

- QTSC는 IT, 소프트웨어 위주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QTSC에는 빌딩, 사람, 컴퓨터만 있음. 현재 총 1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50여개의 외국기업 중 한국 기업도 있는데 IT 분야의 기업임. 삼성, LG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제조·생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Q8) QTSC내 기업 입주는 100% 완료되었는지?

- 90%이상 입주한 상태임. 기업들은 QTSC가 임대해주는 빌딩에 입주하거나, 직접 빌딩에 투자(건축)해서 입주할 수 있음. QTSC에서 임대해주는 빌딩의 입주율은 80% 이상임.

Q9)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입주비율 제한이 있는지?

- 국내외 기업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세금혜택도 똑같이 적용됨.

Q10) 외국기업 중 QTSC를 떠난 기업이 있는지?

- 2017년에 10개 기업이 떠났음. 이들이 왜 떠났는지 분석을 해보니 근무 인력 부족, 인력 고용의 어려움과 근무자들의 이직 문제 등이 있었음. 또한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상업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기도 했음.

□ 시사점

○ 베트남 최초·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QTSC¹⁾

- 베트남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왔는데, 이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QTSC(Quang Trung Software City), HLHTP(Hoa Lac Hi-Tech Park), SSP(SaiGon Software Park) 등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들을 유치하였다.
- QTSC(Quang Trung Software City)는 베트남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촉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00년 6월에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 진행하였고 2001년 3월에 본격적인 설립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는 QTSC같은 소프트웨어단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총 40여 헥타르의 면적에 업체 입주 공간, 교육시설, 주거공간, 생산시설 등 일체의 관련시설을 단지 내에 보유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을 진행한 것이며, 이러한 QTSC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생산, 수출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국제규격의서비스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제공
 - ▲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육·설립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및 해외의 사업적인 도움을 제공

1) 출처 : 동남아 소프트웨어시장 조사보고서(2001. 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의 제공

▲ QTSC내에 수학·물리학·정보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소를 설립

▲ 해외에 있는 베트남 People들에게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베트남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제휴 및 협력을 촉진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QTSC에는 2018년 10월 현재 157개 ICT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베트남 국내기업 107개 및 미국, 유럽, 아시아 등 50개 외국기업들로 있다.
- 또한 QTSC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교육 및 개발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인적자원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시아 톱10 소프트웨어 단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QTSC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

- (세금) QTSC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 후 베트남 자국 기업의 경우 최초 2년간, 해외투자기업은 최초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자국내 기업에게는 2년, 해외투자기업에게는 9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설비·자재 수입 시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투자) QTSC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정부자금으로 연간 3.5%의 이율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단지내 부지사용 및 임대

우선권 부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불법복제 방지 지원, 직원 교육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0 QTSC의 경우 저렴한 임차료가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데, QTSC 입주기업의 경우 평방미터당 US\$ 0.40/월의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되어 있는 건물내의 사무실 임차시 US\$2/m²/월, 추후 건축되는 건물내의 사무실 임차시는 US\$7미만/m²/월의 사용료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 (저렴한 네트워크 비용) 베트남의 경우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높은 인터넷 사용료인데, QTSC 입주기업의 경우 월 700달러로 64K의 전용선을 임대할 수 있으며, 개인 랜사용료는 US\$ 21/월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전력, 용수, 전용선의 사용 등이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QTSC에 입주하는 것은 다른 많은 부분의 혜택이 물론 있으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구축 필요

-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이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약 100만평 규모에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들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정밀부품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임.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집적지가 아닌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의 융복합 신기술을 국가산단에서 산업화하고, 국가산단의 첨단 신소재·부품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는 등 혁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임.

- **(4-2 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4-2 생활권 금남면 집현리 일원 750,356㎡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중심의 첨단업종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세종테크밸리 입주 기업에는 세금 감면(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해 30억원 이상(토지 매입비 제외) 투자하는 기업의 임직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인근에 임대아파트(행복주택)도 1천500 가구가 건립된다.
- 이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QTSC 조성 사례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긴밀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 고급 인력이 연구기관과 입주 업체로 유입되고, 생산 및 연구활동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IT·BT·ET 소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공동이용 기자재, 근로자 복지시설 등 차별화된 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방문활동 사진



▲ QTSC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



▲ QTSC 회장 Tran Huu Dung 인사말



▲ QTSC 현황 설명 및 간담회



▲ QTSC 현황 설명 및 간담회

② 드림플렉스 (Dreamplex)

□ 방문목적

베트남의 경제도시 호치민시를 대표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인 ‘드림플렉스’ 방문을 통해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열풍의 현주소 확인

□ 방문개요

- (일 자) 2018. 10. 10.(수) 10:00 ~ 11:00
- (참석자) 15명(세종시의회 13, 드림플렉스 2)
- (내 용) 드림플렉스 1호점 소개, 시설 견학

□ 드림플렉스 (Dreamplex) 현황

- (개관) 2015년
- (위치) 베트남 호치민시 1구 Nguyen Trung Ngan Street 21, 10층
- (시설) 공용 업무공간, 독립 사무실 공간, 회의실, 라운지 등
- (특징) 호치민 코워킹스페이스의 원조, 2016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문
- (장점)
 - 정부기관, 기업, 상업시설이 밀집된 호치민 중심지역 ‘레탄톤 거리’ 위치
 -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개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안락하고 편리한 사무공간 제공
 - 사용자들간 커뮤니티를 형성, 정보 공유 및 협업 촉진
 -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각종 세미나·설명회 개최

□ 시사점

○ 베트남에 불고 있는 스타트업 열풍²⁾

- 국민 평균 연령 약 30세의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창업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의 모습은 ‘스타트업의 시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채용정보 전문업체 내비고스(Navigos) 그룹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청년(21~36세) 3명 중 2명(64%)이 ‘3년 이내에 스타트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현지 언론들도 성공한 스타트업 주자들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Start up)’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했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 이전의 신생 창업기업,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통용된다.
- 2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1만1,158개. 전월 대비 29.6%나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 10개월 동안 등록된 기업 수도 작년 한해 등록된 수(11만)에 근접한 10만5,1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호찌민공대 수송기계학부의 레 딘 투언 교수는 “스타트업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엠키에우(베트남계 해외교포)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도 많이 보고 있다. 베트남은 ‘창업 시대(start-up era)’ 진입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 출처 : 한국일보 ‘스타트업에 미래 건 청년들’ (2017.11.22., 정민승 기자)

- 이 같은 베트남의 창업 열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각종 장비와 시설을 저렴하게 공유하는 협업 공간 공급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베트남 호찌민시에 처음 소개된 협업 공간은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만 이듬해 4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7개로 확대됐다. 이후 6개월 동안 다시 6곳이 늘어 지난 6월 말 현재 23곳에 이른다. CBRE베트남 관계자는 “협업 공간의 가파른 증가 배경에는 스타트업 붐이 있다”고 말했다. 협업 공간은 전통적인 의미의 오피스 빌딩에서 내벽을 허문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로 분류된다. ▲인건비, 통신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 운영비 ▲인구 9,500만 규모의 큰 시장 ▲6%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통한 중산층 구매력 향상 ▲높은 교육열에 따른 고급 인적자원 등이 거론된다.
- 모바일 앱 개발 전문 업체 슈트릭스(Sutrix)의 크리스토프 람 이사는 “뛰어난 인재가 풍부해 정보통신(IT) 등 첨단 분야의 스타트업에게는 최적”이라며 “저렴한 인건비와 마케팅비용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적어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같은 ‘토양’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스타트업이 뿌리내리는 데 필수적인 ‘물(투자)’은 부족한 상황이다. 스타트업 관련 강의를 베푼 베트남을 찾은 장 살레 길베트 ‘미나텍(MINATEC)’ 최고경영자

(CEO) 자문역은 “잘 교육받은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자금이 없는 게 문제” 라며 “기술과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찾아 각 기관과 정부를 찾아 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고 전했다. 미나텍은 나노기술 분야의 프랑스 국책 연구소다.

-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응우옌 쑤언 폭 총리는 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지난 7일 다낭에서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서밋’ 에서 베트남 경제 성장의 세 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활성화’ 를 거론하면서 투자를 요청했다. 베트남은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스타트업 증권거래소(UPCoM) 등도 운영하고 있다.
- 베트남이 스타트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데에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자국 기술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베트남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기대만큼 기술이전이 되지 않거나 자국 협력사들의 기술이 향상되지 않는 게 문제” 라고 말했다.
-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도 자국 기업들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는, ‘외자에 의한 경제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의한 수출액 비율은 2011년 49%에서 5년만인 지난해 70%를 돌파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호찌민시 인근 ‘사이공 실리콘 벨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 동남아 경제전문가 고영경 말레이시아 UNITAR 국제대 교수는 “동남아 주요 IT 기업에서 베트남 엔지니어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유수의 기업들이 개발센터를 베트남에서 키우는 등 베트남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만큼 동남아 스타트업 교두보로 손색없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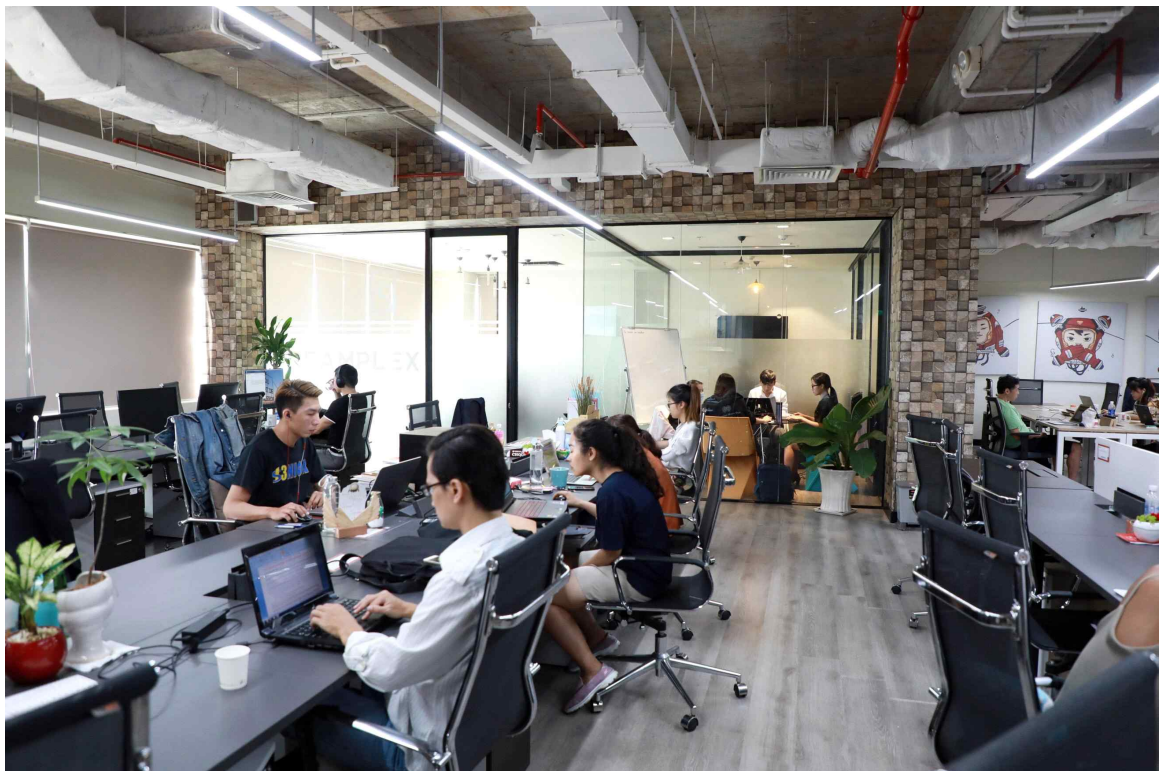
○ 세종시 스타트업 육성 방안

- 세종시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발굴 기관으로는 ‘세종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종 창업키움센터’를 2019년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인 SB플라자(장영실 과학기술센터), 4-2 생활권에 구축하고 있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등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 이러한 시설들은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단순 공간제공을 넘어서 법률, 특허, 금융, 멘토링, 고용, 세무 등의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창업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이 일반 창업에 비해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자율차 산업 등 세종시의 중점 육성 산업기반과의 연계,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강화 및 전문서비스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2019년 출범예정인 세종 테크노파크(TP)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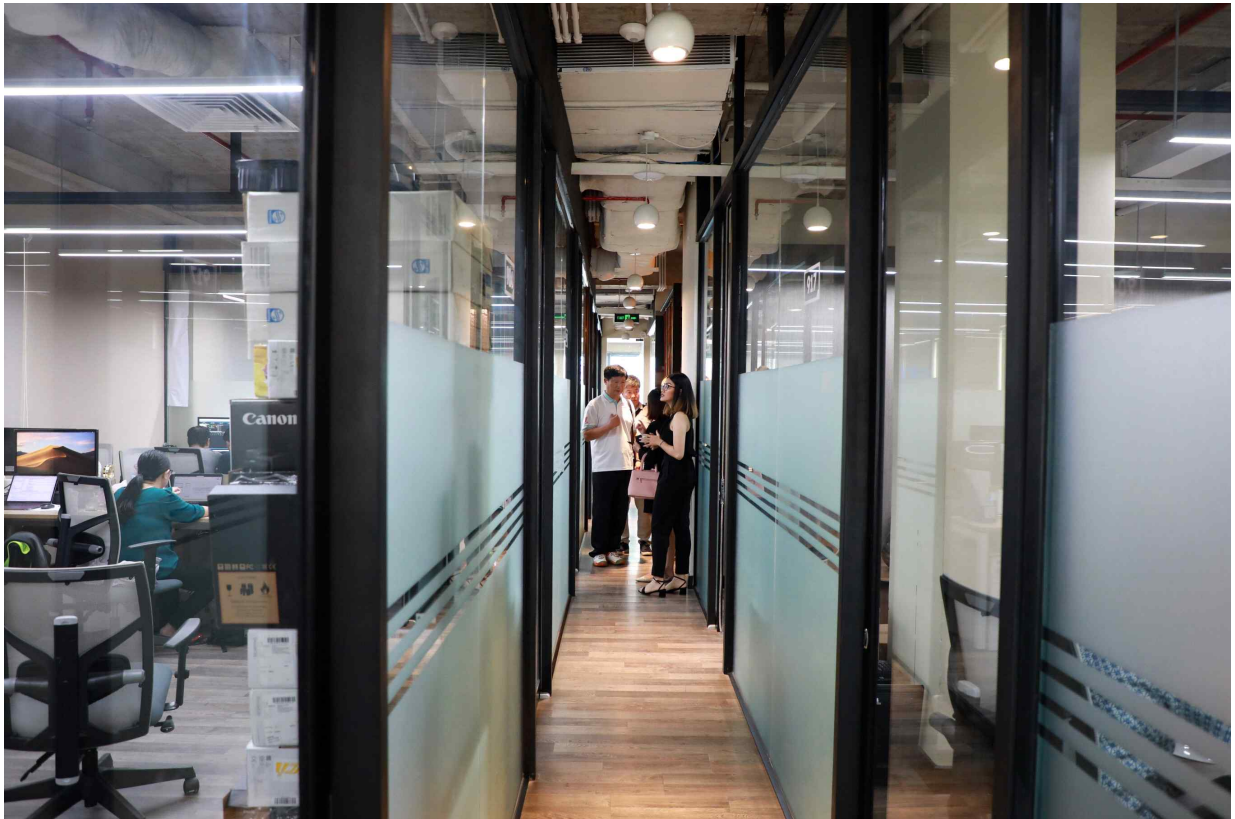
□ 방문활동 사진



▲ 드림플렉스 현황 설명 청취



▲ 드림플렉스 공용 업무 공간



▲ 드림플렉스 독립 사무공간



▲ 드림플렉스 방문 기념촬영

③ 푸트라자야 관리청

□ 방문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조성의 모델이 되었던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를 방문하여 도시성장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 방문개요

- (일 자) 2018. 10. 11.(목) 10:00~ 14:00
- (참석자) 17명(세종시의회 13, 푸트라자야 관리청 3)
- (면담자) MOHD FAIRUS BIN MOHD PADZIL 부청장
- (내 용) 세종시 현황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푸트라자야 현황 질의·응답

□ 푸트라자야 (Putrajaya) 현황

- (개 요) 말레이시아의 3개 연방직할령 중의 하나로, 연방정부의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
- (면 적) 46km² ※ 세종시 면적 465.23km²
- (조 성) 1995년 착공→1999년 총리실 이전→2010년 정부기관 이전 완료
- (인 구) 91,900명 (2018년 기준)
- (주요기관) 총리실, 내무부, 재무부, 외무부, 교통부 등 20여개 정부기관
※ 국제무역산업부, 국방부, 노동부 3개 부처만 쿠알라룸푸르에 잔류

□ 시사점

○ 절제된 마스터플랜으로 세워진 계획도시, 푸트라자야³⁾

- 푸트라자야는 1993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이전을 결정하면서 개발 계획이 시작되어, 이듬해 ‘가든시티’ 콘셉트로 전체 도시 면적의 39%를 녹지공간으로 배치하고 399만3,000㎡(약 121만 평) 규모의 대규모 인공호수와 198만㎡(약 60만 평)의 인공습지를 개발했다. 절제된 디자인 컨셉트를 바탕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아래 1996년 착공에 들어간 지 14년 만인 2010년 완공. 원래 이곳은 팜 오일(야자유)과 고무를 생산하던 녹지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행정 및 관광도시로 관광객만 매년 2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 시작은 행정 도시였지만 현재는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인공호수 건설을 통해 38km에 이르는 긴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습지를 생태계 체험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총리 집무실, 재정경제부 등 푸트라자야를 대표하는 건축물 등을 둘러보며 계획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인근에 있는 IT 멀티미디어 도시인 사이버자야(Cyberjaya)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저탄소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 ‘뉴 말레이시아의 상징’, ‘미래로 가는 관문(Gateway to the future)’ . 푸트라자야는 이런 슬로건 아래 1999년 총리실을 필두로 20개 행정 부처와 대법원, 경찰청 등이 입주해 있는 꿈의 행정 수

3) 출처 : 제주발전포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지역개발정책 사례조사’ (제주발전연구원 윤원수 전문연구위원)

도이다.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건물들의 개성이 넘쳐
오히려 관광명소나 리조트 단지라는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다. 차량
으로 5분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이버자야(Cyberjaya)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대학을 포함해 외국 대학 4개와
IBM·인텔·모토로라·델·후지쓰 같은 300여개의 글로벌 IT(정보
기술)기업들의 연구개발(R&D)센터와 데이터센터 등이 입주, 말레
이시아판 ‘실리콘 벨리’의 꿈을 키우고 있다.

- 두 도시는 독립 50주년(8월31일)을 맞아 변신을 거듭하는 말레이
시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압축판이다. 이런 변화의 밑바탕에는
‘매년 7%의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가 넘는 선진
국을 만들자’는 ‘2020 국가 비전(Vision 2020)’이 관통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고층건물인 KL의 페트로나스 타워(높이 452m)에서
사이버자야를 거쳐 세팡 국제공항까지 길이 50km, 폭 15km 일대
(총면적 750km²)에 480억 링깃(약 12조9,600억원)을 투자, 세계 최고의
첨단 IT산업지대로 만들겠다는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더(MSC)’
구상이 그 결정체이다.

○ 저탄소 스마트 커뮤니티도시

-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2009년 9월 ‘2010년 예산 연설’에서 국가의
수도 도시인 푸트라자야(Putrajaya)와 IT 멀티미디어 도시인 사이버
자야(Cyberjaya) 두 도시를 저탄소 도시로 개발하고 국가의 저탄소
도시 개발의 쇼케이스로 하는 것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는 두 도시에서 저탄소 도시,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약 6천만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본 종합 연구소와 시미즈 건설, 도시바 등 8개사와 기타큐슈를 일본 측의 실시 기관으로 결정했다. 두 도시의 도시 개발 기본 계획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건물을 소개하는 에너지 빌딩 부문, 모노레일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교통 부문, 물 폐기물 처리 부문 등 3개 부문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도 친환경, 살기 좋은 미래 도시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축제의 도시

- 푸트라자야에서는 열기구 축제, 꽃 축제, 불꽃 축제, 요트대회, 자전거 경주대회, 국제 등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어, 말레이시아·이슬람 전통 양식과 현대 양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및 쾌적한 인공호수와 함께 푸트라자야가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행정도시 발전 방안 모색

- 푸트라자야는 행정수도 세종시 개발의 롤 모델이 되었던 도시이지만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된지 10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인구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시는 출범 6년만에 인구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인 성장은 푸트라자야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 등 푸트라자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 육성 등에 있어 앞으로도 두 행정수도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방문활동 사진



▲ 푸트라자야 현황 설명 청취



▲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 방문단 기념촬영

4 MKM (Maktab Koperasi Malaysia,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대학)

□ 방문목적

- ICT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능형 도시 모델 SW특화 산업단지로,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발전방안 벤치마킹 등을 실시

□ 방문개요

- (일 자) 2018. 10. 12.(금) 10:00 ~ 12:00
- (참석자) 17명(우리측 13, QTSC 4)
- (면담자) Haslinda 국제협력과 부국장
- (내 용) MKM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협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 MKM (Maktab Koperasi Malaysia) 현황

- (설립일) 1956. 11. 1.
- (위 치) 말레이시아 슬랑고르 주 페탈링자야 46700
- (특 징)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협동조합 훈련 센터
- (기 능)
 - 협동조합 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출판
 - 인증서 또는 학위 수여
 -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문·지식기반 서비스 수행
 -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 (근무인원) 200명

□ 면담내용

Q1) MKM의 연간 운영 예산은?

- 협동조합 수익의 2%에 해당하는 기여금 2,000만 링깃(약 54억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사용,
- 정부지원예산은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해외연수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

Q2) 연간 배출 연수생 인원은?

- 2017년에는 연 45,300명의 연수생을 배출

Q3) 협동조합 운영 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 최초 5년간 감면, 이후 5년간은 조합비 수입 75만 링깃(약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감면, 그 이상인 경우는 부과함.

Q4) 말레이시아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 금융협동조합, 도·소매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음. 중학교부터는 대부분 협동조합이 있음

Q5) 공무원을 교육하는 목적은?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협동조합을 잘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님. 협동조합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방문활동 사진



▲ MKM 현황 설명 청취



▲ MKM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 방문단 기념촬영

□ 시사점

○ 협동조합의 개념

- 협동조합의 개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미국 농무성(USDA)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하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구분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유럽 협동조합법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소유체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미국 농무성(USDA)	회원들이 소유·통제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비윤리적으로 분배·운영되는 조직
미국 뉴욕협동조합법	비영리조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자족·협동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조합원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하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진다.

-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주된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와 조합원이 직장인 혹은 사업자인 경우, 이질적인 조합원이 혼합된 경우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노동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 그리고 판매자협동조합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의 목적	주요 조합원	사업의 성격	협동조합 유형	
사업이용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 욕구 충족	일반소비자	구매대행/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구매협동조합
		서비스 · 자산 공동이용		이용협동조합
	직장인/사업자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대행	사업자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상호제공/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들의 자세 자체가 다르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도 상이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생산자, 이용자, 직원 등 일반 협동조합의 다중이해

관계자 조합원 외에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의 존재가 인정된다.

○ 협동조합의 특징 및 역할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공동소유, 1인1표(출자규모와 무관), 배당제한, 민주적 운영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은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다른 시민단체,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과 달리 자본주의 과제들을 대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윤리적·합리적·인간적인 사업조직과 모델을 지니고 있지만 기업들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어야 하는 기업이다. 또한 만약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본다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특징과 가치는 수익창출보다는 수입배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소득분배에서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적립금, 노동자·구성원·이용자 간 배분, 잉여금의 사회적 목적 지출 등에서 민간 영리회사와는 다른 형태를 띤다.

둘째, 협동조합은 다양한 경제사회영역에서 설립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농업, 어업, 소매업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주택, 의료, 학교, 은행, 기부, 식당, 여행,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도 일반기업과 같이 경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다. ICA의 정의처럼 협동조합은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율·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자율과 자발이 매우 중요하므로, 누군가 시켜서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고, 조합원 모두가 소유하고, 민주적인 가치와 운영원칙이 살아있는 조직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리인 1인 1표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운영하며 시장 수익보다는 구성원이나 공동체의 이득이나 만족을 목표로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통합의 허브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다양한 기여를 한다.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

구 분	주요 내용
독점적 시장에 대항한 시장개척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기업에 도전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제품과 서비스 제공	지역, 특히 낙후지역의 missing market에 대한 보완 (사회적기업, 농촌지역협동조합 등)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생산자협동조합은 ‘원가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및 판매역량 강화를 주축으로 함
지역사회 통합	물품 구매와 판매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소통과 허브 역할 수행
인구 증가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소득창출 등의 효과
인적자원 개발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은 지역 리더십 개발의 장을 제공
환경문제 유발 축소	조합원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속가능성 문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환경문제 대응에 적극적임

○ 말레이시아의 협동조합 운영·관리 현황⁴⁾

- 말레이시아 내수경제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가 협동조합 관련한 일을 총괄한다. 내수경제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과 같은 MCSC(Malaysian Cooperative Societies' Commision)를 통해 협동조합의 등록이나 관리 및 감독이 이뤄진다. MCSC는 일종의 협동조합 진흥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말레이시아에는 협동조합 대학인 CCM(Co-operative College of Malaysia)(=MKM)이 있다. 이곳에서는 협동조합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협동조합을 훈련시킨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협동조합 전국연합회인 앙카사(ANGKASA)가 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는 MCSC, CCM(=MKM), 앙카사 세 개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역할분담을 한다. 이들은 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조정하며 서로 협력한다.
- 말레이시아에는 2013년 기준으로 총 1만587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이 중 21%인 2262개가 학교협동조합이다. 중학교부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학교협동조합은 대부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의 총 매출액(약 77억 원)은 전체 협동조합의 총 매출액(약 4조 원)의 1.5%에 해당한다.
-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성공요인으로는 정부의 협력과 지원, 협동조합연합체 및 협동조합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을 꼽을 수 있다.

4) 출처 : 오마이뉴스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한 학교협동조합의 성공비결’ (2014.2.5. 주수원 기자)

○ 세종시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 세종시에는 총 11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등록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 103개소,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세종시 내 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확대·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후 어느 정도의 협동조합의 체계가 갖춰진다면, 다양한 협동조합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적·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경제의 의미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착과 성공 여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